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영아의 순응성 연구*

A Study on Infant Compliance According to the Types of
Care and Multiple Attachments*

백지혜(Jihye Baek)¹⁾

조복희(Bokhee Cho)²⁾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types of care and multiple attachments on the issue of infant complia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2 infants (1-2 years old) and their caregivers (grandparents, baby sitters, daycare teachers) and their m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type of care and multiple attachments types affected infant compliance in relation to the mother. In the daycare center, the infants showed more signs of compliance than whilst in the care of the grandparents. Moreover, with the secure-secure, secure-insecure types, the infant showed more signs of compliance than with the insecure-secure, insecure-insecure types. (2) The types of care affected infant compliance in relation to the caregiver. In the daycare center, the infant showed more signs of compliance than in the care of both the grandparents or baby sitter. (3) Multiple attachment types were found to affect infant compliance in relation to strangers.

Key Words : 타인양육 유형(types of care), 다중애착 유형(types of multiple attachment), 순응성 (compliance).

I. 서 론

최근 가족의 구조가 변화되고 여성의 사회활동

이 보편화됨에 따라 영아가 어머니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생애 초기 영아의 어머니 부

* 이 논문은 2009년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²⁾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전공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Jihye Baek, venue tower 3th floor, 58-14 Banpo-dong, Seoul 137-803, Korea

E-mail : pina3@korea.com

재 및 타인에 의한 양육이 영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박연순, 2004; 박영하, 2005; 신귀순, 2006; 양연숙, 2000; 이민경, 2001; 하지영, 2004; 현정환, 2003).

특히 영아기는 이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로(조복희, 2007), 이 시기 동안 어머니와 영아는 특별한 유대적 관계인 애착을 형성한다. 애착이론가들은 영아기 동안의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이 영아의 사회성의 기초로서, 또 정서적인 안전기저로서 필수적이라는 증거들을 보고하였다. 이시기 영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은 이후 영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효율적인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영아가 어머니가 아닌 타인 양육을 받는 것은 영아의 안정 애착 및 이후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 많은 연구의 논의와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NICHHD, 1997). 반면, 단지 영아기 타인 보육의 경험이 필연적으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며(오재연, 2006), 이것은 타인 보육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육의 맥락적인 부분이 고려된 상태에서 영아기 애착과 발달에 대한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연구들로 이어지고 있다(강유선, 2005; 김영명외, 1999; 백지혜, 2009; 양연숙, 2000; 오재연, 2006; 허윤진, 2002; NICHD, 2006).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 관계만을 중시했던 초기 애착 연구와는 달리, 그 후의 애착 이론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어머니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양육 받는 영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영아의 애착 관계를 일차적 관계와 이차적 관계로 구분하고 있다. 즉 영아가 일차적 애착 대상인 어머니 한 사람과만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형제, 조부모, 베이비시터, 보

육교사와 같은 타인양육자 등 여러 이차적 인물에 대해 애착을 형성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Ainsworth, 1979; Lamb, 1975; Scarr, 1992), 이러한 다중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영아 발달에 서로 보완적이며 총체적인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Goossens & van IJzendoorn, 1990; Howes & Hamilton, 1992a; Howes, Rodning, Galluzzo, & Myers, 1988). 영아기 동안 영아가 어머니가 아닌 양육자에 의해 양육을 받는 경우, 대부분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양육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애착과 양육자와의 애착은 모두 영아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이후 발달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어머니나 양육자 어느 한쪽의 애착관계만이 아닌 어머니와 양육자에 대한 다중적인 애착을 고려해야 하며, 이와 같은 차원에서 Lamb 등(1985)은 애착은 영아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맥락의 다양한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육자와의 애착은 어머니와의 불안정 애착에서 오는 발달의 부정적 영향을 보상해 줄 수 있음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제안되고 있다(Mitchell, 1996; Howes & Hamilton, 1992b; Oppengeim, Sagi, & Lamb, 1988; 신지연, 2002; 손혜숙, 1999, 2000; 김영명, 1997). 또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경우에도 양육자에 대한 안정애착이 부가되어 더욱 긍정적인 영아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van IJzendoorn, Sagi, & Lambermon, 1992; Howes et al, 1988; 신지연, 2002).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현실에서 영아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임을 고려한다면, 생애 초기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더 나아가 자신

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 대해 이해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아가 유능한 사회인으로서 타인과의 관계맺음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상황적 변화를 빨리 그리고 적절히 대처하는 행동적, 정서적 조절 능력인 순응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돌봐주는 양육자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회에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해간다. 즉 영아는 일상에서 배가 고파도 종종 음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재미있는 장난감을 만지고 싶어도 참아야 하며, 하고 있던 놀이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생애 초기에 성인의 요구나 기대에 순응하는 행동은 영아가 속한 사회의 행동 기준을 내면화하는 능력의 초석이 되며, 사회적인 관계 및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영아의 순응성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능력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특히 어머니 또는 양육자에게 순응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낯선 타인에게 순응하는 행동은 자아인식과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 증가하는 영아기 후반에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일 뿐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발달 과제이며 사회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다(하지영 2004; Macoby, 1992, 재인용). 영아기의 아동은 충동적 경향이 있고 인내심이 부족하여 상황 내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의 조절이 용이하지 못하므로 좌절을 쉽게 경험하고 또래관계의 증가로 인해 상황에 적절한 행동과 정서의 자율적인 조절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만약 성인에 대해 순응하지 못한다면 분명 영아의 사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아의 순응성이 이후 문제행동, 비행과 같은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는 결과들(Chen et al, 2002; Patterson, 1982)도 영아기 순응성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

키고 있다.

영아기 애착 관련된 연구들은 단순히 어머니와 영아의 애착, 또는 양육자와 영아의 애착 등의 한 가지 차원의 애착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과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영아가 형성하는 다중 애착의 특성이나 그것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양육에 있어서도 영아기 특성상 기관 보육 못지않게 많은 영아가 이용하고 있는 조부모 양육, 베이비시터 양육이 함께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영아의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라 영아의 순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라 영아의 순응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타인양육 유형 및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이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1. 용어의 정의

1) 타인양육 유형

타인양육이란 영아를 어머니 외에 타인이 돌보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타인양육 유형은 조부모 양육, 베이비시터 양육, 기관 보육의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2) 다중애착안정성 유형

다중애착(Multiple Attachment) 안정성이란 영아가 생애 초기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에게

동시에 애착하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다중애착은 한 영아가 어머니와 그 외의 타인 양육자(조부모, 베이비시터, 보육교사) 즉, 두 사람과 형성한 애착관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은 4가지, 즉 안정-안정 유형, 안정-불안정 유형, 불안정-안정 유형, 불안정-불안정 유형¹⁾으로 구분한다.

3) 영아의 순응성

영아의 순응성은 어머니 또는 양육자에 대한 순응성과 타인에 대한 순응성으로 구분되며, 어머니 또는 양육자의 지시에 대한 영아의 반응을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그 외 다른 사람(조부모, 베이비시터, 보육교사)의 양육을 함께 받고 있는 만 1~2세 영아 52명이다. 연구 대상은 인터넷 육아정보 사이트 및 인터넷 카페에 연구 참여를 신청한 부모들 중에서 본 연구의 참여 조건에 적절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타인 양육자와의 애착은 2개월 이상의 돌봄을 통해 안정적으로 형성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양연숙, 2000; Clarke-Stewart, 1987; McCartney, 1984, 재인용)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 영아는 현재의 양육자에게서 2개월 이상 양육 받고 있는 경우이며, 영아가 어머니 외 2개 이상의 유형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경우

에는 현재 가장 오랜 시간 양육을 받고 있는 유형을 주양육으로 포함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는 조부모 양육을 받는 영아 17명, 베이비시터 양육을 받는 영아 16명, 보육기관에 다니는 영아 19명으로 총 52명이며, 그들의 어머니와 양육자가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연구대상 영아의 일반적 특성 (N=52)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아	24(46.2)	
	여아	28(53.8)	
영아 특성	연령	16개월	4(7.7)
		17개월	4(7.7)
		18개월	7(13.5)
		19개월	6(11.5)
		20개월	6(11.5)
		21개월	5(9.6)
		22개월	6(11.5)
		24개월	9(17.3)
		25개월	3(5.8)
	26개월	2(3.9)	
출생순위	첫째	41(78.8)	
	둘째이하	11(21.2)	
연령	20대	4(7.7)	
	30대	44(84.6)	
	40대	4(7.7)	
교육수준	고졸	5(9.6)	
	전문대졸	10(19.2)	
	대졸	28(53.9)	
	대학원졸	9(17.3)	
어머니 특성	직업	전문직	14(26.9)
		행정관리직	3(5.8)
		사무직	13(25.0)
		판매서비스직	9(17.3)
		생산운수직	1(1.9)
		전업주부	12(23.1)
가정의 총수입	300만원 미만	10(19.2)	
	300~500만원	19(36.5)	
	500~700만원	8(15.4)	
	700만원 이상	15(28.9)	

1) 어머니와의 애착-양육자와의 애착을 의미한다. 즉 안정-불안정 유형은 어머니와 안정애착, 양육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의 유형이다.

<표 2> 연구대상 양육자의 일반적 특성 (N=52)

변인		조부모	베이비시터	보육교사	빈도(%)
연령	20대	0	1	15	16(30.8)
	30대	0	3	2	5(9.6)
	40대	0	6	2	8(15.4)
	50대	7	2	0	9(17.3)
	60대	10	4	0	14(26.9)
	평균연령(세)	61.5	46.0	27.7	
양육자 특성	교육 수준	중졸	8	0	8(15.4)
		고졸	6	8	14(26.9)
	전문대졸 대졸	전문대졸	0	4	5(9.6)
		대졸	3	4	14(26.9)
양육 경력	1년 미만	0	2	0	2(3.9)
	1~2년	5	3	6	14(26.9)
	2~3년	10	3	3	16(30.7)
	3년 이상	2	8	10	20(38.5)
자격증 유무	있음	0	12	19	31(59.6)
	없음	17	4	0	21(40.4)
총		17	16	19	

2. 연구도구

1) 다중애착안정성

영아-어머니 애착안정성, 영아-양육자 애착안정성으로 구성되는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Waters와 Deane(1985)이 제작한 애착 Q-set(AQS)의 개정판(Waters, 1987)의 한국판(이영·박경자·나유미, 1997)을 어머니와 양육자 각각에게 실시하였다. 애착 Q-set카드는 총 9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카드에는 가정 및 양육 환경에서 보이는 영아의 애착관련 행동이 적혀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Q-set의 안정성 준거점수는 이영·박경자와 나유미(1997)의 연구에 의해 산출된 36개월용 국내 준거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영아와 어머니 및 타인 양육자에게 애착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타인 양육 유형에 따라 각 15~20명 정도씩 모집

하여 측정하였을 때 애착 안정성 점수를 Waters (1987)가 제안한 바대로 어머니, 양육자와의 애착이 각각 상위 2/3에 속하는 영아를 안정애착을 형성한 영아로, 하위 1/3에 속하는 영아는 불안정 애착된 영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네 가지 다중 애착안정성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2/3의 애착 유형 분류의 기준 점수는 어머니와는 0.27, 양육자와는 0.27로 어머니와 양육자의 애착 유형 분류의 기준점수가 같았다. 연구에 참여한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 점수의 평균은 0.34이었으며 점수 범위는 -.23~.67이었다. 양육자에 대한 애착안정성 점수의 평균은 0.32이었으며, 점수범위는 -0.20~0.66으로 나타났다.

2) 영아의 순응성

(1) 어머니 또는 양육자에 대한 순응성

영아의 순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NICHD (1998) 연구에서 사용된 장난감 정리하기 과제

도구이다. 검사과정은 우선 영아와 어머니 또는 양육자가 15분간 「The 3-Boxes 실험과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후, 검사자는 어머니 또는 양육자에게 장난감 통을 가져오게 하여 어머니 또는 양육자가 5분 동안 영아에게 그 장난감을 집어넣어 정리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그 밖의 어떠한 다른 지시도 어머니 또는 양육자에게 하지 않고, 영아와 어머니 또는 양육자가 5분간 또는 모든 장난감을 통에 담아 정리되는 동안 비디오를 녹화한다. 비디오 녹화된 자료는 본 연구자와 영아 양육상태나 애착상태 등을 전혀 모르는 자료수집에 함께 참여할 아동학 전공자 1명이 함께 동시에 채점을 하였으며, 순응성이 어머니 또는 양육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영아의 반응에 의해 5점 척도로 채점되었으며, 장난감 정리하기 과제를 통해 측정된 순응성 점수는 1~5점까지 산출되었다.

(2) 타인에 대한 순응성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 측정을 위하여 Bayley 검사도구 중 6개(빨간 토막, 크레용, 숟가락, 책, 인형, 열쇠)를 활용한 측정도 함께 실시되었다.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자는 영아에게 “이제 정리해야해요. (어떠한 제스처어도 없이) 선생님에게 그 장난감(6개 중 하나)을 주세요.”라고 말한다. 필요한 경우 10초 후에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한다. 영아가 검사자의 지시를 따르는데 실패한 경우, 검사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 측정을 위해 본 연구자 이외에 Bayley 검사자 1명이 함께 영아의 집 또는 양육 장소에 방문하여 검사가 실시되었다. 각 항목에 대해, 우선 검사자는 영아가 그 지시를 따르려고 했는지의 여부(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가 채점되었고, 또 영아가 그 장난감을 돌려주었는

지의 여부가 채점되었다. 모든 영아는 0점(비순응) 또는 1점(순응)을 받으며, 각 항목 당 0점에서 2점까지의 점수를 받아, 영아의 순응성 점수는 총 6개 항목의 점수 총합(0~12점)으로 산출되어진다.

3. 연구절차

연구실험 관찰이 진행되기 전에 우선 사전 만남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구하였다. 그런 후 본 실험 관찰을 위한 날짜와 시간을 정한 후, 애착 Q-set, 장난감 치우기 과제, Bayley 검사 도구를 이용한 순응성 측정이 진행되었다. Bayley 검사 도구를 이용한 영아의 순응성 측정을 위해 본 연구자 이외에 1명의 Bayley 검사자가 함께 동행하여 대상 영아에게 Bayley 검사를 실시되었고, 검사 도중에 Bayley 검사자에 의해 순응성 측정이 이루어졌다. 실험 관찰시간 전후를 활용하거나 이후 재만남을 통해 또는 전화 통화를 통해 어머니나 양육자에게 영아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지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밖의 추가 질문 사항은 구체적인 형식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진행하였다. 실험관찰은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1명의 영아당 총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30분~3시간 정도이었다. 관찰을 하면서 연구자가 직접 현장노트를 작성하는 동시에 비디오 녹화를 함께 하여 모든 자료가 채점 및 분석되었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들의 통계적 분석은 SPSS 15.0 통계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배경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

분율을 산출하고, <연구문제 1>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산분석(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또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 과정에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를 위해 우선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만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명목척도인 타인양육 유형 및 다중애착 유형을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가변수화 한 후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영아의 순응성

1)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차이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타인양육 유형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은 조부모 양육이 평균 2.59점(표준편차 1.50), 베이비시터 양육이 평균 3.81점(표준편차 1.52), 기관 보육이 평균 3.84점(표준편차 1.38)으로 기관 보육이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조부모 양육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다중애착 유형에 따른 영아의 순응성 점수는 어머니양육자의 애착 안정도가 각각 안정-안정인 경우 평균 4.00점(표준편차 1.38), 안정-불안정인 경우 평균 3.90점(표준편차 1.20), 불안정-안정인 경우 평균 2.60점(표준편차 1.78), 불안정-불안정인 경우 평균 1.86점(표준편차 0.38)으로, 안정-안정인 경우가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불안정-불안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을 함께 고려해볼 때, 조부모 양육, 베이비시터 양육, 기관 보육에서 모두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이 안정-안정일 때 평균 3.10점(표준편차 1.60), 4.75점(표준편차 0.46), 4.43점(표준편차 1.13)으로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불안정-불안정일 때 평균 1.67점(표준편차 0.58), 2.00점, 2.00점(표준편차 0.00)으로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타인양육 유형이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주효과는 $F=4.86, p=.013$ 으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이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주효과는 $F=9.04, p=.000$ 으로 유의수준 .0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이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F=1.25, p=.30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있어 그 효과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분석 과정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해본 결과 타인양육 유형 중 조부모 양육이 기관 보육보다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또 다중애착안정성 유형 중 안정-안정, 안정-불안정이 불안정-안정 유형, 불안정-불안정 유형보다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3>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 차이에 대한 이원변량 (N=52)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유의도	부분에타 제곱	Scheffe 검증 ²⁾³⁾
절편	312.64	1	312.64	219.41	.000	.846	
타인양육 유형	13.84	2	6.92	4.86	.013*	.195	C>A
다중애착안정성 유형	38.64	3	12.88	9.04	.000***	.404	1,2>3,4
타인양육 유형 * 다중애착안정성 유형	10.67	6	1.78	1.25	.303	.158	

* $p < .05$ *** $p < .001$

2)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차이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타인양육 유형에 따른 순응성은 조부모 양육이 평균 2.65점(표준편차 1.54), 베이비시터 양육이 평균 2.94점(표준편차 1.77), 기관 보육이 평균 4.68점(표준편차 0.75)으로 기관 보육이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조부모 양육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영아의 순응성 점수는 어머니-양육자의 애착안정도가 각각 안정-안정인 경우 평균 3.68점(표준편차 1.60), 안정-불안정인 경우 평균 3.30점(표준편차 1.70), 불안정-안정인 경우 평균 3.60점(표준편차 1.58), 불안정-불안정인 경우 평균 2.86점(표준편차 2.04)으로, 안정-안정인 경우가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불안정-불안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을 함께

고려해볼 때, 조부모 양육은 안정-안정 유형이 평균 3.60점(표준편차 1.17)으로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불안정-안정, 불안정-불안정 유형이 평균 1.00점(표준편차 0.00)으로 영아의 순응성이 가장 낮았다. 베이비시터 양육에서는 불안정-안정 유형이 평균 3.67점(표준편차 1.15)로 가장 높은 순응성 점수를 보였고, 불안정-불안정 유형이 평균 2.00점으로 가장 낮은 순응성 점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관 보육은 안정-안정 유형과 불안정-불안정 유형에서 평균 5.00점(표준편차 0.00)으로 가장 높은 순응성 점수를 보였고, 안정-불안정 유형에서 평균 4.00점(표준편차 1.41)으로 가장 낮은 순응성 점수를 보였다.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타인양육 유형이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주효과는 $F=16.83(p=.000)$ 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이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주효과는 $F=1.54, p=.22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2) A=조부모 양육, B=베이비시터 양육, C=기관 보육
3) 1=(어머니 애착) 안정-(양육자 애착) 안정, 2= 안정-불안정, 3= 불안정-안정, 4= 불안정-불안정

<표 4>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 차이에 대한 이원변량 (N=52)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유의도	부분에타 제곱	Scheffe 검증 ⁴⁾
절편	350.17	1	350.17	215.85	.000	.844	
타인양육 유형	54.59	2	27.29	16.83	.000***	.457	C>A,B
다중애착안정성 유형	7.48	3	2.49	1.54	.220	.103	
타인양육 유형 * 다중애착안정성 유형	21.97	6	3.66	2.26	.057	.253	

*** $p < .001$

가 없었다.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F=2.26$, $p=.057$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있어 그 효과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분석 과정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해본 결과 타인양육 유형 중 기관 보육이 조부모 양육이나 베이비시터 양육보다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3. 타인양육 유형 및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이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1) 타인양육 유형이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타인양육 유형에 따른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타인양육 유형에 따른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 점수는 조부모 양육이 평균 8.88점(표준편차 3.95), 베이비시터 양육이 평균 10.25점(표준편차 3.42), 기관 보육이 평균 9.79점(표준편차 3.46)으로 베이비

시터 양육이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조부모 양육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타인양육 유형이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타인양육 유형에 따른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타인양육 유형이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효과는 $F=.62$, $p=.54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이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 점수는 안정-안정 애착유형이 평균 11.00점(표준편차 2.06), 안정-불안정 애착유형이 평균 9.80점(표준편차 3.82), 불안정-안정 애착유형이 평균 9.40점(표준편차 2.50), 불안정-불안정 애착유형이 평균 4.86(표준편차 5.15)으로 안정-안정 애착유형이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불안정-불안정 애착유

4) A=조부모 양육, B=베이비시터 양육, C=기관 보육

<표 5> 타인양육 유형에 따른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대한 일원변량검증결과 (N=52)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유의도	Scheffe 검증
절편	4808.55	1	4808.55	368.20	.000	
타인양육 유형	16.14	2	8.07	.62	.543	

<표 6>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대한 일원변량검증결과 (N=52)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유의도	Scheffe 검증 ⁵⁾
절편	3210.08	1	3210.08	343.28	.000	
다중애착안정성 유형	207.20	3	69.07	7.39	.000***	1,2,3>4

*** $p < .001$

형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이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이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효과는 $F=7.39,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이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질적 변수인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을 가변수로 변환하여 수치화하였다.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이 4개의 범주이기 때문에 3개(범주 개수-1)의 가변수를 이용하여 변환하였다. 자료 변환 시 다중애착 유형 중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던 불안정-불안정 애착유형을 기준으로 다른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의 변수를 변환하였으

5) 1=(어머니 애착) 안정-(양육자 애착) 안정, 2=안정-불안정, 3=불안정-안정, 4=불안정-불안정

<표 7> 불안정-불안정 유형을 기준으로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의 가변수 변환 결과

영아-어머니	영아-타인양육자	가변수 1	가변수 2	가변수 3
안정	안정	1	0	0
안정	불안정	0	1	0
불안정	안정	0	0	1
불안정	불안정	0	0	0

며, 사용된 가변수 변환 결과는 <표 7>과 같다.

회귀분석 전에 실시한 다중공선성 진단⁶⁾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42~0.51로 0.1 이상이었 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96~2.37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았으며, 상태지수(CI)는 1.00~5.26으로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다중공선성 진단이란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할 때 지정하는 기능으로 한 독립변수가 다른 독립변수와의 선형관계를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는 0.1 이상이다.

<표 8>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결과

(N=52)

	<i>b</i>	<i>SE</i>	β	<i>t</i>	R^2	<i>Adjust R^2</i>	<i>F</i>	유의도
(상수)	4.86	1.16		4.20***				
가변수1 ⁷⁾	6.14	1.31	0.86	4.70***	0.32	0.27	7.39	.000***
가변수2 ⁸⁾	4.94	1.51	0.55	3.28**				
가변수3 ⁹⁾	4.54	1.51	0.50	3.02**				

** $p < .01$ *** $p < .001$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이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가변수 변환 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이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F=7.39$,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불안정-불안정 애착유형을 기준으로 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4.86+6.14X_{\text{안정-안정}}+4.94X_{\text{안정-불안정}}+4.54X_{\text{불안정-안정}}$$

또한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대한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안정-안정의 경우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beta=0.86$, 안정-불안정의 경우 $\beta=0.55$, 불안정-안정의 경우, $\beta=0.50$ 으로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안정-안정 애착유형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안정-불안정 애착유형, 불안정-안정 애착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영아의 순응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에 영아의 순응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차이 및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론 및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양육 유형이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주효과와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보면, 조부모에게 양육 받는 영아보다는 보육교사에게 보육받는 영아들이 어머니에게 더 순응적이었다. 이것은 조부모 양육의 특성 상 영아에 대한 교육적 책임의 부담감 없이 순수하게 아낌없이 사람을 베풀 수 있는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관계(김문정, 2006; 김은주 외, 2007; 배지희 외 2008)의 영향으로 인해, 보다 조부모가 영아에게 덜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도 상대적으로 덜 순응적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반대로 기관 보육에서의 교사는 보다 교육적인 책임이 강하게 작용하여 정서적인 애정 관계와는 별개로 영아에게 보다 일관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영아가 어머니에게 보일 수 있는 순응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순응성 측정은 놀이하던 중 장난감을 정리하라는 어머니의 지시에 영아가 따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때 영아가 보이게 되는

7) 안정-불안정 애착유형이 1이 입력된 경우이다.

8) 불안정-안정 애착유형이 1이 입력된 경우이다.

9) 불안정-불안정 애착유형이 1이 입력된 경우이다.

순응성, 즉 어머니의 지시를 잘 따라 바로 장난감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타인과는 다르게 어머니에게는 영아가 기본적으로 신뢰감과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영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긴장감이나, 이것을 해도 되는지 등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영아는 타인보다는 어머니에게 보다 순응적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고집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보이는 순응적 행동에 대한 분석은 다소 신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라서도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영아가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안정-안정, 안정-불안정)의 영아들이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형(불안정-안정, 불안정-불안정)의 영아들보다 어머니에게 보다 순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아가 형성한 불안정 애착이 영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Bowlby, 1982; Cassidy, 1994; Sroufe et al., 1999; Weinfield et al., 2000), 애착 안정성과 영아의 순응성 관계를 설명한 연구(Frankel & Bates, 1990; Matas et al., 1978; Bates et al., 1985)의 결과를 지지한다. 애착 이론에서는 영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과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어 갈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순응성의 발달 핵심기제가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Bowlby, 1969/1982). 특히 어머니와 함께 공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정서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며(Adamson & Bakeman, 1991), 이때 어머니는 영아가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를 통제하도록 지도하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Kopp, 1989; Mundy, Kasar, & Sigman, 1992)고 보았는데,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어머니와

의 안정적 애착형성이 영아의 순응적 능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내면화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아가 어머니에게 순응하는 행동은 어머니와의 애착 안정성 이외에 양육자와의 애착 안정성과는 별다른 상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타인양육 유형이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기관보육은 조부모 양육이나 베이비시터 양육에 비해 영아가 양육자에게 높은 순응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가 그 이면에 존재하는 동기에 따라 순응적 행동을 한다는 Kochanska(2002)의 연구결과와 그 의미를 함께하고 있다. 다시 말해 1~2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양육이 이루어지는 조부모 양육에 비해 많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관보육에서 영아는 타인 양육자 즉 보육교사에게 덜 애정철회를 느끼고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보다 순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Hartup(1958)은 양육자로부터 애정철회의 불안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영아의 순응 행동이 발달한다고 보기도 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육교사의 특성이 영아의 순응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육교사는 조부모나 베이비시터와는 다르게 보다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영아와의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영아에게 보이게 되는 보다 일관되고 단호한 모습으로 인해 영아가 보다 잘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영아의 가정이나 타인 양육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조부모 양육과 베이비시터 양육, 그리고 보육기관에서 보육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관보육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같은 시기의 영아를 돌보는 양육이나 양육환경의 차이 양육자와 영아와의 관계, 양육자의 전문성 및 직업의식 등으로

인해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은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있었으며, 어머니와 양육자 둘 모두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불안정-불안정 유형에 비해 안정-안정 유형, 안정-불안정 유형, 불안정-안정 유형 모두 타인에 대한 영아의 높은 순응성을 보였다. 또 그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도 안정-안정 유형이 가장 크게, 그 다음으로 안정-불안정 유형, 불안정-안정 유형의 순서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영아는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이 안정-안정 유형일 때 타인에게 가장 순응적으로 행동하였으며, 불안정-불안정일 때 가장 순응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였다. 이것은 영아가 어머니나 양육자에게 순응성을 보이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제3자인 타인에게 보인 순응성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결과이다. 사실 영아가 타인에게 순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곧 영아가 가정이나 보육 환경에서 벗어나 일반 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사회적 능력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불안정-불안정 유형이 안정-불안정 유형이나 불안정-안정 유형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은 영아가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 양육자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다면 어느정도 보상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다중애착의 보상적인 측면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라 영아의 사회정서적 측면을 살펴본 신지연(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안정-불안정 유형이 불안정-안정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것은 타인 양육자와의 애착 안정성에 앞서 어머니와의 안정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양육 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은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다. 영아의 타인양육 유형이 기관 보육일 때, 조부모 양육의 영아보다 어머니에게 보다 순응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조부모 양육의 특성상 조부모가 영아에게 덜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도 상대적으로 덜 순응적일 수 있으며, 기관 보육에서의 교사는 보다 교육적인 책임이 강하게 작용하여 정서적인 애착 관계와는 별개로 영아에게 보다 일관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영아는 타인보다는 어머니에게 보다 순응적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고집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보이는 순응적 행동에 대한 분석은 다소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아가 어머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안정-안정, 안정-불안정)의 영아들이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유형(불안정-안정, 불안정-불안정)의 영아들보다 어머니에게 보다 순응적인 것으로 밝혀져 애착유형과 순응성은 깊은 관련이 있다.

둘째, 영아의 타인양육 유형이 기관보육일 때, 조부모 양육이나 베이비시터 양육의 영아보다 양육자에게 순응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타인양육 유형은 양육자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과 관계가 있다. 보육교사의 특성이 조부모나 베이비시터와는 다르게 보다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영아와의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영아에게 보이게 되는 보다 일관되고 단호한 모습으로 인해 영아가 보다 잘 순응하게 되는 것이라 예상한다.

셋째, 영아의 다중애착이 어머니와 타인 양육자에게 모두 불안정한 불안정-불안정 유형은 다른 세가지 유형과는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그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봤을 때, 안

정-안정 유형, 안정-불안정 유형, 불안정-안정 유형, 불안정-불안정 유형의 순으로 나타나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은 타인에 대한 영아의 순응성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다중애착의 보상적인 측면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안정-불안정 유형이 불안정-안정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것은 타인 양육자와의 애착안정성에 앞서 어머니와의 안정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영아의 가정 및 양육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험, 관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 모집과 진행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수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 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포괄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영아의 상호작용의 질 및 순응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타인양육 유형 이외의 양육 및 보육 변인이나 애착 이외의 기질과 같은 영아특성의 변인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육 및 보육변인, 영아변인, 가족변인과 같은 좀 더 넓은 맥락에서의 영아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강유선(2005). 유아의 보육경험과 애착유형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정(2006).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 경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명(1997). 어머니 및 보육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정서적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명 · 이순형(1999). 애착 대상과 보육시작 시기에 따른 유아의 애착 안정성. **한국영유아보육학**, 17, 429-451.
- 김은주 · 서영희(2007).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실제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75-192.
- 박연순(2004).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비교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하(2005). 양육경험에 따른 유아의 애착 안정성.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희 · 노상경 · 권경숙(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379-410.
- 백지혜(2009). 영아의 보육의 안정성, 시작시기, 양과 애착 안정성 간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1), 195-212.
- 손혜숙(1999). 어머니와 교사의 복합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혜숙(2000). 복합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성과 반사회성. **유아교육연구**, 20(3), 85-97.
- 신귀순(2006). 보육의 질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지연(2002). 2세 영아의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복합애착과 사회, 정서적 행동.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연숙(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재연 · 광노의(2006). 유아의 보육경험과 어머니 및 교사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정서적 행동문제 연구. **유아교육연구**, 26(1), 167-187.
- 이민경(2001).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 · 박경자 · 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연구. *영아학회지*, 18(2), 131-148.
- 조복희(2007). 아동발달. 서울 : 교육과학사.
- 하지영(2004).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 경험이 남녀 영아의 불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윤진(2002). 어머니와의 분리경험과 타인 양육의 특성이 모-자간 애착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정환(2003). 보육시설 보육경험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고. *교육논총*, 14.
- Adamson, L. B., & Bakeman, R. (1991). The development of shared attention during infancy. *Annals of Child Development*, 56, 583-593.
- Ainsworth, M. D. S. (1979). Infant-mother attachment. *American Psychologist*, 34, 932-937.
- Bates, J. E., Maslin, C. A., & Frankel, K. A. (1985). Attachment security, mother-child interaction, an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behavior problem ratings at age three years.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67-19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Vol. I.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
- Cassidy, J., & Berlin, L. J. (1994). The insecure/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971-991.
- Frankel, K. A., & Bates, J. E. (1990). Mother-toddler problem solving : Antecedents in attachment, home behavior, and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61, 810-819.
- Goossens, F. A., & van IJzendoorn, M. H. (1990). Quality of infants' attachments to professional caregivers : Relation to infant-parent and day-care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61(3), 832-837.
- Hartup, W. W. (1958). Nurturance and nurturance-withdrawal in relation to the dependency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29, 191-201.
- Howes, C., Rodning, C., Galluzzo, D. C., & Myers, L. (1988). Attachment and child care : Relationships with mother and caregiv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403-416.
- Howes, C., & Hamilton, C. E. (1992a).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caregivers : Mothers and child care teachers. *Child Development*, 63, 859-866.
- Howes, C., & Hamilton, C. E. (1992b).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care teachers : Stability and concordance with parental attachments. *Child Development*, 63, 867-878.
- Kochanska, G., Murray, K., & Harlan, E. T. (2002).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 220-232.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Lamb, M. E. (1975). Fathers : Forgotten contributors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245-266.
- Lamb, E., Thompson, R., Gardner, W. P., & Charnov, E. (1985). Infant mother attachment : The origins and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trange situation behaviors. Hillsdale, NJ : Erlbaum.
-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of adaptation in the second year :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Mitchell, C. J. R. (1996). Child-Teacher Attachment and Social Competence(Preschoolers, Child Care). ProQuest-Dissertation Abstracts, AAC 9621496 (George Mason University, MAI-A 57-03, 1018).
- Mundy, P., Kasari, P., & Sigman, M. (1992). Non-

- verbal communication, affective sharing and intersubjectivit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4, 499-506.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7). The effects of infant child care on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 Results of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8 (5), 860-879.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1998). Early child care and self-control, compliance, and problem behavior at twenty-four and thirty-six months. *Child Development*, 69(4), 1145-1170.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6). Child care and child development. The Guilford Press.
- Oppenheim, D., Sage, A., & Lamb, M. E. (1988). Infant-adult attachment on the kibbutz and their relation to socio-emotional development four years lat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727-733.
- Scarr, S. (1992). Developmental theories for the 1990s : Development and individu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63, 1-19.
- Sroufe, L. A., Carlson, E.A., Levy, A. K., & Egeland, B. (1999). Implication of attachment theory f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1-13.
- van IJzendoorn, M. H., Sagi, A., & Lambermon, M. (1992). The multiple caregiver paradox : Data from Holland and Israel. In R.C.Pianta(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 No. 57. Beyond the parent : The role of other adults in children's lives*(pp.5-27). San Francisco : Jossey-Bass.
- Waters, E. (1987). The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49, 483-494.
- Weinfield, N. S., Sroufe, L. A., & Egeland, B. (2000). Attachment from infancy to early adulthood in a high-risk sample : continuity, discontinuity, and their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71, 695-702.

2009년 10월 29일 투고, 2009년 12월 30일 수정
2010년 1월 7일 채택